

健
康
生活

두 레박에 물남아 올듯 아찔한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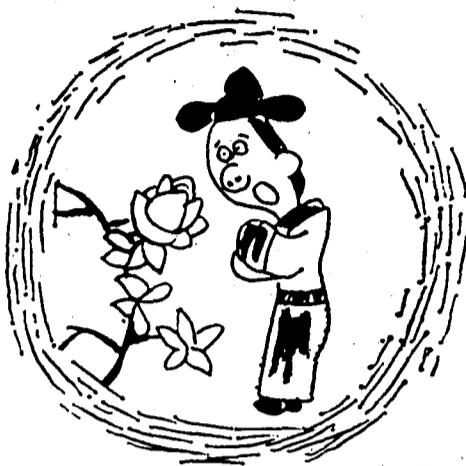
불란서 지역에
까리에」라는 단어가 마치 죽어
의 「스스갈벌이터」와 비슷하게
그렇게 서 있어 본 일이 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것도
내리질 않아 다시 알고 보니
에깔리에」는 출처로 가는 것이
었다. 승강기는 오히려 「아창선」
이라고 표시 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전기가 풍부하지
면서 승강기가 많아 놓아두고
이전 아파트마다 의당 「걸리풀이
터」라는 이름으로 거의 우리가
말인듯 쓰여지게 되었다.

옛날 예전의 이야기로
느 배화점의 승강기는 이제야 말
로 「걸리풀이 되고 단 걸리이라하
겠다.」

아무도 없는 승강기에 나온
자만하고 있으면 대개는 1, 2, 3, 4, ...로 표시된 숫자를
따라 불빛이 끊어지는 것을 바라
보는 경향이 많다. 가끔 천장이나
벽 그리고 바닥을 놓아두고
기도록. 어떤 아이나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곳에는 난서도보



金 瑩 珍
國立醫療院 神經精神科長



인대·아마트의 승강기 바닥에는
시골 아주머니들이 선거출마 일의
것을 토해 놓은 것과 같다.

이 아득 멀뚱한 곳에서 내리게
된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기
운을 젓자 박해 보려고 바닥만
데마다 보고 내리고 놔기까지 했
다. 그러다가는 내가 내리는 곳
는 젊어는 사람끼리 물풀밭에
이되어 버린다.

보이는 기분을 떠나 내리게
되는 기본을 떠나 내리게
되는 기본을 떠나 내리게

昇降機 인생

도로에서 데려온 물을 담아 올리듯
하는 기본을 떠나 내리게

하는 기본을 떠나 내리게